

세계 최초의 지하철과 만국요리, 런던 여행

김윤기

◦ 피카디리 써커스 광장의 에로스像.
이 주변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로 들끓는다. 이 뒷골목이 유명한 환락가 쏘호 지구다.

런던은 9백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수도다. London이란 말은 원래 켈트어에서 나왔다. 현 세인트폴사원 자리에 옛날 다이아나(月)사원이 있었는데, 「달의 거리(月街)」가 켈트어로는 Luan-dun이다. 반대로 지금 천문대가 있는 Greenwich는 켈트어로 「태양의 거리」란 뜻이었다 한다.

런던의 시계(市界)는 현지인들도 모른다. 런던은 시계가 아주 복잡한 도시다. 그

것은 수도 경찰이 관할하는 구역(Metropolitan Police District), 교통행정 관할구역(London Transport Area), 우편관할구역(London Postal Area), 선거관할 구역이 모두 틀리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수도와 그 부근지역을 모두 합한 이른바 수도권지역을 Great London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City of London이 또 따로 있다. 런던의 중심부에 있는 이 지역은 영국

경제의 중심이며 세계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한다. 유명한 잉글랜드은행, 증권거래소, 로이드보험회사 등이 모두 이 지역에 있고, 시장도 따로 있으며, 경찰도 독립되어 있고, 제복도 틀리다.

• 런던의 시내교통

런던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지하철이 생긴 나라다. 1863년에 개통되었으니, 1백30년 가까이 되었다. 당시엔 증기기관차라 연기를 뿜고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땅속으로 거미줄처럼 11개노선(국철포함)이 달리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시민의 발노릇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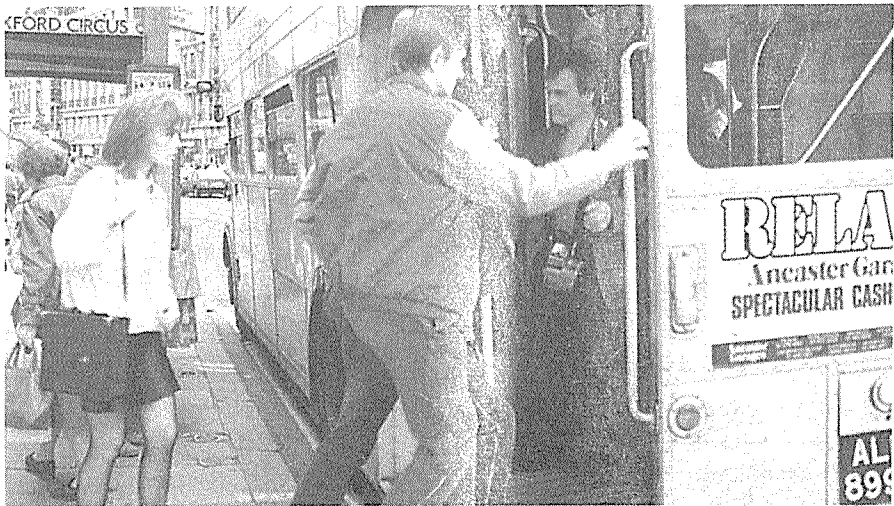
런던서는 지하철을 Under Ground로 부르고 있다. 이름때문에 지하철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지하철은 Subway로 미국식과는 정반대다. 시민들은 지하철을

그냥 튜브(Tube)라고 재미나게 애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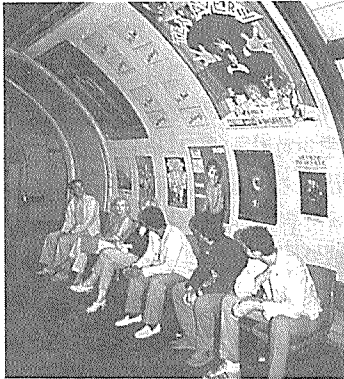
런던의 지하철은 땅속 깊이가 있는것이 특징이다. 어떤 역(Hampstead역)은 지하 60미터에 있어 엘리베이터로 한참 내려가야 하고, 어떤 역(Leicester sg역)은 장장 50미터나 되는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역간거리는 보통 6~8백미터로 짧아 자주서고 시내 곳곳 안가는 곳이 없어 편리하기론 최고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저 50페니에서부터 시작한다. 요금체계가 어찌나 복잡한지 현지인도 잘 몰라, 아무 표나 한장 사가지고 타고가서 내릴때 정산하는 일이 많다. 표를 살때 창구에서 지도를 보여주고

- 2층버스 정거장. 후안에 광통같은 기계를 둘러 멘 차장이 보인다. 버스 앞쪽으로 옥스포드 싸어커스 지하철역 입구가 있다.



표를 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마음대로 탈수있는 3일간짜리(7 £) 5일간짜리(10 £), 7일간짜리(13 £) 패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하루만 사용하는 카드도 있다.



• 튜브형 지하철 역의 플랫폼 홀.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벤치에 앉아 있다.

시내버스는 빨간색 2층 버스로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데 노선이 복잡하여 노선도를 잘 이해하고 타야한다. 버스는 뒷문이 개방되어 있어 「위험이 없는 한 아무데서나 타고 내릴수 있는것」이 특징인데, 요금은 뒷문에서 차장이 받는다. 1층은 금연석이고, 5인까지 입석이 가능하며 만원이 되면 손님을 더 태우지 않고 통과해버린다. 정거장중에는 탈때는 손을 들어야하고 내릴때는 부자를 놀려야 세워주는 Request stop이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런던의 택시는 우리나라 봉고차만큼 크다. 그러나 손님은 뒷좌석에 4명만 태우고, 운전석과는 차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금은 기본료, 주행료, 할증료, 짐값(수에

따라 틀림)등을 합쳐 청구한다. 또 탑으로 거스름돈을 더 준다.

• 호텔 찾기

런던에는 여러종류의 호텔들이 고루 갖추어진 도시다. 정부에서 매긴 등급은 없으나, 수준에 따라 대체로 4개로 분리된다. 일종의 민박호텔인 B & B(Bed & Breakfast)는 요금이 싸고 가정적 분위기이며, 자취하는 사람의 편리까지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 등도 있다.

호텔은 메이페어지구, 피카딜리부근, 파딩톤부근, 나이트브릿지부근등에 집결해 있다. 더씨티나 옥스퍼드거리 같은 곳에서는 호텔을 찾을 수 없다. B & B는 빅토리아역 주변에 많다.

• 퍼브와 영국요리

런던의 최고 명물은 역시 퍼브다. 주로 맥주를 파는 술집인 퍼브는 우리나라 다방처럼 많다. 전국에는 7만채, 런던 중심가엔 1,500여채가 있다. 퍼브는 술집이라기 보다는 서민층의 사고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곳에서 맥주를 마실때는 「one Beer, Please !」식으로 주문해선 안된다. 생맥주라면 비터, 병맥주라면 라가로 불러야 한다. 수량도 하푸 핀트(0.3ℓ), 완핀트(0.6ℓ)로 구분해서 호칭한다. 영업시간은 낮 11시~15시 사이, 밤 6시~11시 사이에만 영업하므로 아무때나 출입할 수 없다. 퍼브에서 와인이나 위스키도 팔지만 값이 비싸다. 퍼브

에선 간단한 식사도 판다. 퍼브런치라고도 부른다. 값이 싸고, 빨라 대중에게 인기가.

영국에는 영국요리가 없다. 대신 영국에는 만국요리가 모두 있다. 유럽각국 요리는 물론, 아랍요리, 인도요리, 중국요리, 일본요리 등 없는것이 없다. 한국요리도 물론 있다.(한국식당리스트 참조)

영국요리는 유럽 다른나라에 비해 싸고 양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영국인의 아침식사는 빵와 코피 또는 주스 한잔이다. 대신 점심과 저녁은 푸짐하다.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은 로스트비프.

조미료나 향신료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간단히 맛을 내는 것이 영국요리의 매력(?)이다.

런던에서 흔히 볼수 있는 Fish & Chips는 카페레스토랑 스타일의 대중식당으로 생선과 치킨, 소시지 등의 요리를 값싸게 판다.



◦ 레이세스토 스퀘어 역의 에스컬레이터. 그 길이가 50m나 된다. 손님들은 오른쪽에 서는 것이 예치켓이다. 바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한 중앙에 필자)

가 야 KAYA	22-25 Dean st. W1 독립미술관 뒷쪽 Tel. 437-6630 소요예산 : 10-15 £	고급 한국식당 분위기 나물 등이 인기 있다.
한 국 의 집 KOREA HOUSE	10 Lancashire Court, W1 본드스트리트 대로 뒷골목 Tel 493-1340 소요예산 : 10-15 £	1층과 지하에 식당이 있다. 중앙홀은 라운지파아
고 려 정 LA COREE	56 st. Giles High st. Wc2 옥스포드街 뒷골목, 소호지구 부근 Tel 836-7235 소요예산 : 10-15 £	프랑스식의 한식당 영업시간 낮 12-15시 저녁 6시~차정
신 라 SHILLA	58-59 Great Marlborough st.W1 소호지구 바로 곁 Tel 434-1650 소요예산 : 10-15 £	즉석 불고기로 인기 조미료가 한국인 입맛에 맞다.
아 리 랑 ARIRANG	31-33 Poland st. W1 피카딜리서커스 북쪽 뒷골목 Tel 437-6633 소요예산 : 10-15 £	영국 최초의 한식집 정통 순한국요리로 유명
아리랑 하우스 ARIRANG HOUSE	3-4 Park Close sw1 지하철 나익스브릿지 하차 하이드 파크 쪽 Tel 581-1820/584-7794 소요예산 : 10-15 £	아리랑식당 직접 한복 아가씨가 서어비스 한다.
서 울 SEOUL	89A Aldgate High st. EC3 런던타워, 리퍼블릭 중간 Tel 480-5770 소요예산 : 10 £ 이하	동쪽 면곳(번두리)에 있다. 값고 예쁜 집. 값도 싸다.
조 원 CHO WON	27 Romily st. W1 피카딜리서커스 부근 대로변 Tel 437-2262 소요예산 : 15-20 £	비교적 고급 한식당 실내장식이 표절러하다.

런던의 한국식당

• 영국은 조금 이상한 나라

같은 유럽이지만 영국은 대륙의 여러나라와 다른점이 많다. 자동차는 왼쪽으로 다니고, 시내에는 2층버스가 있고, 택시는 크며, 왜그런지 거리에 경찰이 많다. 경찰은 꼭 두사람이 짝을 지어다니고, 장난감병정 같은 제복을 입었다.

검정양복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영국신사는 거리에서 만나기 힘들다. 반대로 미니스커트, 히피족들이 너무 많이 거리를 활보한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선지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면서도 절도를 지키는 것이 신기하다. 그리고 흥차를 좋아한다.

〈필자 = 해외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 정보 발행인〉